

# 임실군, 최상의 학교 급식 총력

# 전북 우수 사회적기업 선정

### 관내 유·초·중·고 대상 급식 공급업체 견학... 올해 3월부터 치즈 유제품 지원

임실군이 올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치즈 유제품을 학교 급식으로 제공, 학생과 학부모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낸 가운데 관내 유·초·중·고를 대상으로 한 학교 급식 공급업체 견학을 추진해 공공 급식에 대한 신뢰감을 한층 높였다.

군은 지난 16일과 18일 이틀간에 걸쳐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장과 교감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 42명을 대상으로 한 급식 공급업체 견학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이번 견학은 임실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이후 처음 추진한 것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외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 (주)친한F&B를 방문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견학은 학교 급식 식재료 납품 절차를 세세히 설명하고, 보관 상태, 위생 상태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섭취하는 학교 급식 재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런 가운데 올해 3월부터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 관내 학교 유제품 지원사업이 학교와 학생, 학부모, 영양교사 등에게 임실 고품질 유제품을 급식으로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군은 임실치즈농협과 임실교육지원청과의 '관내 유제품 학교 급식 무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시작



임실군은 지난 16일과 18일 이틀간에 걸쳐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장과 교감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 42명을 대상으로 한 급식 공급업체 견학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으로, 36개소에 재학 중인 1,500명의 유·초·중·고등학생에게 파우치 요거트와 스트림치즈, 치즈스틱 등 다양한 유제품을 주당 2회 3,000원 내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관내 사회적 배려 대상 및 다자녀 가정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월 1만 5천원 한도 내에서 우유 및 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유 바우처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유제품 무상급식 사업은 인구 감소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역 내 미래세대의 건강을 챙기고, 미래 소비층을 겨냥한 장기투자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무엇보다 관내 낙농가들의 판로개척과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 등 임실 유가농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편이다.

군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응이 무척 좋고, 우리 지역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업에 집중하는 데 행정이 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정책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제품 횡수 등 확대추진과 타지역 학교 등으로 확대하는 데 도교육청과 협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

심 민 군수는 "지역에서 나는 신선한 농산물을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바른 먹거리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유제품 급식 공급은 좋은 정책인 만큼 타지역 학교 등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청년·남원아동발달센터 2개소 쾌거

남원시가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우수 사회적기업 선별 결과 총 3개소 중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인 (유)청연과 (유)남원아동발달센터 2개소가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문제 해결과 같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며 제조, 생활 서비스, 유통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경제 경영체의 대표 모델이다.

이번 공모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경제적·혁신적 가치를 기반으로 우수 모델 확산과 지역 내 사회적경제 생태계 가치수준을 제고하고자 추진되었다. 사회적기업의 공식 평가 기준인 사회적가치지표 측정 결과가 '우수 또는 탁월' 등급에 해당되는 도내 기업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남원시 (유)청연은 전통연회를 전공한 청년 예술인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결성한 기업으로, 국

악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요소를 접목한 창작 활동을 통하여 전국을 무대로 각종 공연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LED 달빛출판, '광한투원에 피어난 연회꽃' 등 남원의 관광 명소를 기반으로 한 문화기획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유)남원아동발달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지역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언어와 놀이, 미술을 통한 재활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언어심리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센터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청소년발달장애인방과 후활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우수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도지사 표창장, 현관 부착과 앞으로 광역 지원기관의 관로 지원사업, 자금 지원, 투자 사업 등에 우선 연계되는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소식통

### 순창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실시

순창군이 오는 23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약 3주간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수거는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수거하여 산불 방지, 농촌 지역 환경 개선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수거 품목은 폐비닐(비닐 하우스나 농작물 덮개로 사용된 비닐), 농약빈병(사용한 농약병)이고, 기타 영농폐기물(부직포, 차광막, 모종판, 점적호스 등)은 순창군 쓰레기위생매립장으로 직접 배출하면 된다.

폐비닐은 마을 내 지정된 공동 집하장에 모아두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고 농약빈병은 마을별로 설치된 전용 수거함 또는 읍·면사무소에 배출하면 된다.

기타 영농폐기물은 순창군 쓰레기위생매립장에 직접 가져가야 하는데, 이때는 읍·면사무소에서 영농폐기물 배출확인증을 먼저 발급받아야 한다.

/순창=이영원 기자

### 임실군, 대기오염 예방 적극 관리 나서

임실군이 관내에 설치된 가스열펌프(GHP)에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염물질 저감 장치의 부착을 지원하고, 대기 배출시설로 설치신고를 유도하는 등 대기오염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에 나선다.

가스열펌프를 가동할 경우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돼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23년 1월 1일 시행으로 대기 배출시설로 신규 편입됐다.

다만,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 배출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대기 배출시설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던 기존 시설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대기 배출시설 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군은 올해 사업비 7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가스열펌프를 설치 운영 중인 시설 27대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 가수 배아현·개그맨 조래훈, 남원시 홍보대사 위촉

남원시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트로트 가수 배아현과 개그맨 조래훈을 21일 남원시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위촉패를 전달했으며, 이날 배아현은 고향사랑기부금 200만원을 남원시에 전달했다.

트로트 가수 배아현은 "사랑하는 어머니의 고향인 남원과 인연을 맺게 되어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재위촉된 조래훈 씨는 현재 KBS 개그콘서트, JTV전주방송 가보리 시즌즈에 출연하며 각종 축제 MC를 도맡아 진행하고 있다.

남원시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인 기부금을 △미래인재(중학생) 글로벌 해외영역 캠프 지원사업 △특성화고 푸드트럭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지자체 특성사업에 기부하는 '지정 기부제도'를 도입



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가할 예정이다.

한편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시 홍보대사에 위촉되신 두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특별히 고향사랑기부까지 동참해 주셔서 더욱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3년간 남원 알리미로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 찾아가는 경로당 구강건강관리교육 운영

순창군은 이달부터 12월 10일까지 10개소 경로당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구강건강관리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치아와 구강건강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전신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 군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맞춤형 구강관리 교육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은 치아 건강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올바른 칫솔질 방법과 정기적인 잇몸 검진의 중요성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치간칫솔과 치실을 활용하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노년기 구강검진 및 상담, 틀니 사용법 및 세척법, 스케일링 및 불소 도포, 임체조 및 침샘 자극 운동, 임플란트 시술 후 관리 방법 등 실질적인 구강 관리 방법도 함께 교육한다.

/순창=이영원 기자

## 임실군, 청소년 진로·직업축제 열려

### '내 꿈을 찾아서' 주제... 진로 직업·문화 활동 참여 기회 제공

임실군이 지난 19일 청소년문화의집 광장에서 청소년 및 학부모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진로 직업과 문화 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24년 청소년 진로·직업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내 꿈을 찾아서'란 주제로 청소년이 우리 지역의 다양한 진로 직업 체험처와 직업 강사와의 만남을 갖는 등 지역과 청소년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소통의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진행한 1부에서는 청소년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홀랜드(HOLLAND)진로 검사를 기반으로 검사 결과에 따라 진로상담을 받은 청소년들은 나의 미

래 직업군을 찾아가 직업전문가와의 만남으로 진로와 직업에 대해 깊이 있는 탐색을 할 수 있었다.

2부 청소년정책 토크콘서트에는 청소년 참여기구, 동아리, 학부모가 참여하여 1년 동안 청소년이 참여했던 프로그램 성과 보고, '청소년이 바란다' 스피치 활동, 청소년정책에 대한 제안 등 임실군 청소년의 다양한 이야기로 꾸러졌다.

3부 청소년들의 환호와 함께 진행된 문화공연은 비눗방울 놀이, 버블쇼, 풍선아트, 청소년동아리의 댄스공연, 초청팀의 특별공연 등으로 마무리됐으며,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4차산업 관련 드론 축구 경기는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축산약취 개선 공모 선정

남원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축산약취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11억4000만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및 축산약취 저감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공모사업에 전국 11개 시도 57개 시·군에서 신청하여 남원시를 포함한 30개 시·군이 선정되었다.

남원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축산약취개선 사업계획을 자체 수립하고 지난 2021년부터 총 49억여원을 지원해오고 있는 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17개소에 송풍식 퇴비사, 액비저장조, 액비운반차량, 고액분리기 등의 지원으로 약취저감 부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과 축산약취 민원 사전 예방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 임실엔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환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엔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엔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